

# 醴泉 龍門寺 大藏殿과 輪藏臺

오 세 덕\*

## 〈목 차〉

- I. 머리말
- II. 기존 대장전 유구의 재검토
- III. 대장전의 건축형식을 통해 살펴본 윤장대와의 연관성
- IV. 윤장대의 세부기법 및 제작시기
- V. 맺음말

## 국문요약

예천 용문사 대장전 내부에는 경전신앙을 대표하는 조형물인 윤장대가 한 쌍 봉안되어 있다. 이 윤장대에 관해서는 국내 유일한 윤장대로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윤장대를 봉안하고 있는 대장전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전내에 봉안된 장엄물인 윤장대가 대장전과 별도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 관계를 유기적으로 밝혀내는 작업 또한 미술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장전과 윤장대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증명하는 작업을 시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몇 가지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선행유구로 알려진 고려시대 회암사지 대장전 윤장대 하부시설, 혜음원지 대장전 윤장대 하부시설, 영국사 대장전 윤장대 하부시설 등의 재검토를 통해 영국사 대장전 윤장대 하부시설을 제외하고 회암사지와 혜음원지 윤장대 하부시설은 현재까지 고려시대 윤장대의 하부시설로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앞 시기의 대장전 유구 검토를 통해 도출해 낸 몇 가지의 특징과 현재 용문사 대장전의 건축형식 고찰을 통해 선행시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연구원

아 볼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17세기 3×2형 불전인 승림사 보광전, 정혜사 대웅전, 장곡사 하대웅전 등과의 세부건축 형식 비교고찰을 통해 용문사 대장전에 나타나고 있는 세부건축 기법이 윤장대를 고려하여 조성된 건축기법인지를 살펴본 결과 외형적인 건축의 형태에서는 선행 시기 대장전 유구의 모습을 모방하여 나타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세부적인 건축기법은 17세기 다른 불전과 동일하게 불전 건축용으로 만들었던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번째, 윤장대에서 보이는 세부 기법 검토를 통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고려시대 초창이후 현재까지 개·보수 과정을 통해 고대의 기법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세부 기법에서는 고대의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장전의 재건 연대와 동일시기인 17세기 중후반에 전적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동일 시기에 제작된 많은 불전 장엄물과 형식비교 고찰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형식 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은 기존에 있던 윤장대를 모방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주제어 :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영국사 윤장대, 회암사지 윤장대, 혜음원지 윤장대

---

## I. 머리말

龍門寺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이다. 용문사의 창건은 대체로 통일신라 경문왕 10년에 두운선사가 개산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실의 胎室을 봉안한 願刹로서 사찰 주변에는 많은 왕실의 태를 안장하고 있다.<sup>1)</sup> 또한 고려시대에는 “명종 3년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암대사가 발원하여 3만의 승재를 열었고, 또 3칸의 대장전을 지어 윤장대를 안치하였다.”<sup>2)</sup>는 기록을 통해 호국 사찰로서 면모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용문사는 고려이후 사세를 확장시키면서, 조선 선조 41년에 이르러서는 대대적 증수로 사역을 일신하여 근세까지 유지하였다.<sup>3)</sup> 그러나 1984년의 대장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전소되는 참화를 맞았으며, 오늘날 용문사는 대장전 1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새롭게 건립된 건물로 오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장전은 용문사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대 목조 건물로서 내부에 윤장대를 봉안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각이다. 따라서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각과는 구별된다. 이와 같이 불전건축에 있어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용문사 대장전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별 연구 없이 대장전 내부의 윤장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sup>4)</sup> 이에 본고에서는 윤장대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대장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미 알려진 고려시대의 대장전지인 회암사지와 혜음원지, 그리고 영국사 등의 유구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선행시기의 대장전지와 윤장대와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겠다. 이같은 작업을 바탕으로 조선후기에 건립된

1) 『金龍寺本末寺誌』, 『重修龍門寺記』...也昔新羅禪師杜雲與梵日國師乘桴入唐傳...法而還乃卜茲地 芟夷榛榛始結草庵精勤且久... 具越乙酉年降 勅旨勤勞修葺宜以門徒法孫相繼住之勿令廢絕歲在 辛卯陰陽官卜定 今太子胎藏地於寺門外左臂峯頭於寺設祝 ...

2) 『金龍寺本末寺誌』, 『重修龍門寺記』... 國朝多亂大禪師發願設三萬僧齋又別置輪大藏二座及堂三 間作七日法 ...

3) 『金龍寺本末寺誌』, 『續龍門寺事蹟記』, ...乾隆四十八年癸卯一月初六日...

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龍門寺 大藏殿』, 『한국의 고건축』 12호, 1990; 醴泉郡, 『龍門寺 大藏殿-修理報告書-』, 2004; 崔榮淑, 『龍門寺 輪藏臺 研究』,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2007; 이경미, 『고려·조선의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변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이경미, 『고려중기 慧照國師의 對北宋 交流와 轉輪藏 도입』, 『건축역사연구』 제16권 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 閔慈榮, 『醴泉 龍門寺 大藏殿 輪藏臺 꽃살문에 관한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용문사 대장전의 건축적 특징 및 윤장대와의 상호 연관관계를 재조명코자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많은 부분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문사 윤장대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건립된 사찰들의 불전 장엄물과의 양식 비교를 통해 윤장대의 제작시기도 함께 추론해 보겠다.

## II. 기존 대장전 유구의 재검토

윤장대는 불교에서 경전을 넣어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으로 경전신앙을 대표하는 조영물이다. 특히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의 특징상 대부분의 신앙 조영물이 인도에서 발생된 것에 반하여 윤장대는 중국에서 출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釋門正通』塔廟志에 따르면 사찰에 처음 윤장대를 설치한 것은 양나라 때의 善慧大士 傅翕玄風으로, 불도를 믿으려 하나 글을 알지 못하거나 불경을 읽을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공덕이 같다고 하였다. 이 기록 이외에 당나라 때 백거이가 편찬한 『白氏文集』소주만선원 천불당 전륜경자의 석기에 ‘불당 중앙에 경장이 있는데, 8면으로 되어 있으며 경방안에는 바퀴를 달아서 돌릴 수 있게 하였다.’ 라는 기록을 통해 이미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윤장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중국 양나라 때부터 조성된 윤장대는 당나라 이후 송나라 때 크게 유행하여 북송을 걸쳐 고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조형물이다.<sup>5)</sup>

현재까지 고려시대의 건물지 유구 중 대장전지가 확인된 곳은, 회암사지 대장전지를 비롯하여 혜음원지의 대장전지, 영동 영국사의 대장전지 등 3곳이다. 특히 최근 연구 성과를 통해 대장전이 확인된 3곳 모두 혜소국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sup>6)</sup> 그러나 기존에 확인된 대장전지로 추정되는 유구의 성격과 현존하는 용문사 대장전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어 기존 유구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에 확인된 대장전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전의 대장전과 윤장대와의 연관성을

5) 윤장대의 고려 유입설은 이경미의 논문을 통해 언급하였으며 특히 慧照國師가 대북송 교류관계에 의해서 조성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경미, 앞의 논문(한국건축사학회, 2007).

6) 이경미, 앞의 논문, 2007.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 1. 회암사지 대장전지

회암사지의 대장전지는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전모가 확인되었다. 대장전지는 회암사지의 8단지 내 서쪽에 위치하는 건물지로,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규모로 월대를 갖추고 있다.<sup>7)</sup> 특히 본체와 월대 사이에서 발견된 원형 초석은 윤장대의 하부초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8)</sup> 이 초석만 아니라 회암사 대장전과 관련되는 고려시대 기록으로 『동문선』 『천보산회암사수조기』에 의하면, 이색이 회암사 주지 윤절간의 문인 각전에게 회암사를 설명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 중, “내가 보건대 보광전의 5칸은 남쪽으로 면했는데 그 뒤에는 설법전의 5칸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사리전 1칸이 있으며, 또 그 뒤에는 정청 3칸이 있다. 정청의 동서에는 방장 2곳이 있어서 각각 3채인데, 동쪽 방장 동편에는 나한전 3칸이 있고, 서쪽 방장 서편에 대장전 3칸이 있다.”<sup>9)</sup> 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회암사 경내에 남아 있는 대장전 및 부속 전각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특히 방장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에 대장전과 나한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기록은, 현재 회암사지 발굴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지금까지 회암사지 발굴성과와 관련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보면, 현재 회암사지 대장전지의 위치는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장전 내부에 윤장대가 설치되었는가 라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이다. 먼저 회암사지 윤장대에 관한 내용이 처음 언급된 것은 회암사지 내의 8단지 발굴당시에 대장전 본전과 월대 사이에서 지름 1m 내외의 추정 윤장대 하부초석이 발견되면서 부터이다. 즉, 이 초석으로 말미암아 회암사지에 윤장대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10)</sup> 그러나 이초석의 위치가 대장전 본전의 정간 앞쪽 즉, 건물의 기단 끝단과 월대의 경계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 앞쪽에 월대가 설치되었던 우리나라의 사례는 조선시대 경복궁의 근정전 등 궁실 건물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불전 월대의 성격을 현재로선 명확히 단언할 수

7) 『檜巖寺Ⅱ』, 경기도 경기도박물관·양주시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57~62쪽.

8) 崔榮淑, 『龍門寺 輪藏臺 研究』,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2007. 윤장대 하부 초석유구로 판단하고 있음.

9) 『天寶山檜巖寺修造記』, ... 蓋光殿五間面南 ... 西方丈之西 大藏殿三間入室寮 ...

10) 『檜巖寺Ⅱ』, 경기도 경기도박물관·양주시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59쪽을 통해 윤장대 하부 시설 초석으로 보고 있음.

없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당대 불전 중 山西省 忻州의 南禪寺 大殿(사진 3)과 요대 건물인 大同의 下華嚴寺 薄伽教藏殿(사진 4) 등에서 월대가 확인되는데, 월대 상부에 지붕이나 부속시설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월대 상부에 별다른 부속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한국과 중국 건물의 동일한 특징을 감안해 볼 때, 회암사지 윤장대의 하부초석의 위치로 불대 외부로 노출되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추정된다. 게다가 대장전 본전 기단의 끝단에 놓인 윤장대 하부초석의 위치는, 본전 건물의 외단으로 빠져나온 지붕 서까래의 끝단에 해당된다. 이는 외부에 노출된 윤장대는 본전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불가에서 붓다의 밑씀인 경전을 보관하는 윤장대가 법보의 상징으로 불상만큼이나 중요한 조형물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 같은 중요 조형물을 외부에 덮으로써 빗물에 노출되도록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한편 회암사지 추정 윤장대 하부초석은 위치 뿐 아니라 세부 형태에서도 의문점이 발견된다. 먼저 이 초석의 크기는 95cm 정도로, 중앙에 직경 15cm, 깊이 6cm의 반투공 구멍이 뚫려있다. 또 외각에는 보다 작은 직경 7cm의 원투공 구멍 2개가 뚫려 있는데, 각각의 구멍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얇은 홈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시계 반대방향으로만 회전이 가능한 한 방향성을 갖는다.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는 윤장대는 중국의 隆興寺 轉輪藏(사진 5)과 예천 용문사 대장전등의 실례가 있는데 이 윤장대는 공통적으로 맷돌처럼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한 방향성이 아닌 양 방향으로 모두 움직일 수 있어 회암사지 대장전지 하부 초석의 한 방향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1)</sup>

한편 불교 경전에 의하면, 전각 내부에서 부처를 예경하는 방식으로, 3번 또는 7번을 불상의 오른쪽으로 돌며 경배하는 右繞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주요는 불상의 오른쪽으로 도는 방식으로 탑돌이 등 각종 불교의식에서는 우요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된다. 이를 상기할 때 회암사지 윤장대의 하부초석의 방향성을 따라 윤장대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일방향성을 갖춘 조형물이었다면, 회암사 내의 유일한 시계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돌아가는 불교 조형물이 된다는 점이다.

11) 『中國古代建築 正定隆興寺』, 文物出版社, 2000, 15쪽. 轉輪藏旁兩根內柱向左右兩側移動.

12) 『雜阿含經』, 長身婆羅門知佛受請已。爲佛作禮。右繞三匝而去。長身婆羅門還邪盛處；『妙法蓮華經』, 是諸菩薩從地出已, 各詣虛空七寶妙塔多寶如來。釋迦牟尼佛所。到已, 向二世尊頭面禮足, 及至諸寶樹下師子座上佛所, 亦皆作禮, 右繞三匝, 合掌恭敬；『悲華經』, 十方世界亦如是。爾時大眾從釋迦如來毛孔中出。頭面禮佛右繞三匝住於佛前. 외 다수 경전에서 부처님을 예경하는 방법으로 右繞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같이 회암사지 대장전지는 원래의 위치였을 것으로 보이나 내부에 전해지는 윤장대의 하부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조물의 경우에는 세부 기법이나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상부에 윤장대가 놓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 2. 혜음원지 대장전지

혜음원지 대장전지는 최근 발굴조사에서 전모가 확인되었으며, 혜음원지 4-4건물지로 명명되며 대장전지로 추정되었다. 규모는 정면 3칸에 측면 1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13)</sup>(사진 6) 이 대장전지는 혜음원지에서 확인된 다른 건물지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내부에 전이 깔려 있고, 중앙의 한 변 길이가 30cm 정도의 ‘+’자 홈이 드러난 석재가 발견되었다. 특히 석재 중앙에 십자형의 홈과 주변에 남아 있는 철제품의 잔흔 등을 주목할 때 윤장대의 축기둥이 설치되는 하부의 초석 부재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sup>14)</sup>(사진 7) 그러나 이같은 초석의 세부 형태를 통한 혜음원지의 윤장대에 관한 존재 여부에 대한 추정보다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려시대 대장전이 조성되었던 사찰의 일례를 살펴보면, 부여 정림사의 대장전을 비롯한 금산사의 대장전, 개국사의 대장당, 홍왕사의 대장전, 문수사의 전경대, 흥원사의 대장당, 수정사, 국청사의 대장당, 쌍봉사의 전륜대장, 지륜사의 전륜대장, 천신사의 별전 등이 있다.<sup>15)</sup> 그런데 이들 사찰은 개성을 중심으로 하여 왕실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던 사찰들과 개성 외의 경우 고대부터 명찰로서 지위를 유지해 온 사찰로 나누어진다. 이 두 사례에 속하지 않는 사찰로서 대장전이 봉안된 경우는 지리산 수정사와 남원의 천신사에 불과하다. 한편 고려시대 대장전이 조성되었던 사찰들에 비해, 혜음원의 경우 『혜음사신창기』에 의하면, “개성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통행로 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돕는 목적으로 창건되었으며, 왕의 남경 행차시 유숙에 대비하여 왕의 거처를 따로 건립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사찰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sup>16)</sup> 이 외에도 혜음원의 사찰 성격은, 2008년까지 진행된 4차의 발굴조사 결

13) 『파주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1~4차』,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6, 126 ~ 127쪽을 통해서 특수한 건물지로 파악하고 있으며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종합고찰을 통해 윤장대가 시설된 건물로 보고 있음.

14) 이경미, 앞의 논문(한국건축역사학회, 2007).

15) 이경미, 앞의 논문 108쪽 [표 2] 고려 전·중기 대장전 건립 기록과 서가방식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과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에 의하면 사역의 서쪽지역은 사원 성격으로 조성되었고, 이후 동쪽지역에 왕이 기거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서쪽 시설의 일부가 병합된 점을 알 수 있다.<sup>17)</sup>

이상을 통해 최소한 혜음원의 창건 성격은 기존의 대장전을 봉안했던 일반 사찰과 달리, 특수 목적을 띤 사찰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혜음원의 사찰 성격과 함께 과연 4-4건물지의 초창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 또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4-4 건물지는 기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다른 건물지와는 구별되는 전이 깔려 있는 점으로 보아 특수 성격을 띤 건물로 추정된다. 이같은 특수성은 건물의 세부 초석의 형태에서도 명확해지는데, 혜음원의 다른쪽 영역에서 출토된 초석의 경우 사각형의 쇠시리와 주좌를 별도로 치석하지 않은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진 8) 따라서 현재 고려시대 건물지의 초석 형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성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쇠시리와 주좌를 별도로 두지 않는 사각형의 초석은 봉업사지를 비롯한 고달사지, 법천사지 등 남한강 유역에 분포하는 사지에서 확인되고 있다.(사진 9) 이 외에도 고려시대의 궁실터인 개성 만월대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쇠시리와 주좌를 별도로 두지 않는 사각형의 초석을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초석 형태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각형의 초석에 비해 혜음원 4-4건물지에 나타나는 초석의 세부 형태를 살펴보면, 2층의 주좌와 쇠시리를 갖추고 운두를 높게 모각한 것으로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천왕사지나 감은사지, 망덕사지 등에서 보이는 초석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사진 10) 뿐만 아니라 4-4건물지의 정면 협칸의 하부초석과 그 사이에 놓이는 인방초석은 쇠시리와 운두를 갖춘 3.3m 크기의 대형에 속하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다른 건물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크기와 세부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혜음원의 4-4건물지에 남아있는 대장전지는 초석의 세부 형태나 인방초석의 규모로 볼 때 혜음원의 다른 건물지에서 보이는 초석의 형태보다는 고식 건물에서 보이는 세부수법이 확인된다.

한편, 이 4-4건물지의 초창 연대와 관련하여 『혜음원신창기』에는, “봉성현에서 남쪽으로 20리쯤 되는 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허물어진 지가 벌써 오래였으나 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을 석사동이라 불렀다.<sup>18)</sup>” 라고 적고 있어

16) 金富軾, 『惠陰寺新創記』, 『東文選』64記 ... 自東南百郡趣京都興夫自上流而下者無不取道於此故人磨肩馬接跡... 謂若乘輿南巡則不可知其不一幸而踴躍於此宜其有以待之遂營別院一區...

17) 『파주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1~4차』,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파주시, 2006, 337~349쪽. 종합고찰 참조.

혜음원이 창건 이전에 이미 원자리에 선행되는 사찰이 존재하였고, 이를 통해 4-4건물지 역시 혜음원 이전에 창건된 사찰의 부속건물지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혜원지 4-4건물지의 ‘十’자형 초석에 남아있는 철제 흔적은 일반적으로 윤장대 심주의 철제품 고정흔적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의 東大寺(사진 11) 내부 기둥이나 황룡사지의 심주석 상부에 남아 있는 철제흔 등 고대 조성된 많은 건물들에 보이는 기둥 보호목적으로 하부를 철제로 감싸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기둥보호 목적의 철제잔흔으로 보이므로, 이를 윤장대의 중심 기둥이 놓였던 자리로 단정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상에서 혜음원 대장전지의 윤장대 하부초석에 관해서는 사찰의 성격 및 건물지에 나타나는 초석의 세부적인 형태가 혜음원의 다른 건물지와는 시대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단편적으로 12세기 조성된 혜음원의 중요 건물지를 대장전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 4-4 건물지의 초창시기를 혜음원의 창건시기 보다 앞서는 통일신라시대로 본다면, 윤장대가 우리나라에 최초 유입된 시점을 고려시대로 보는 기존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혜음원 4-4건물지의 윤장대 존재 여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sup>19)</sup>

### 3. 영국사 대장전지

충북 영동 지족산 자락에 위치한 영국사의 대장전지는 2003년 발굴조사를 통해 전모가 확인되었는데 정면 1칸에 측면 1칸의 구조이다. 대장전지 내부에는 전돌이 깔려 있고 한가운데에 118×102cm 크기의 석재가 있으며, 석재 중앙에는 16×16cm에 깊이 10cm의 구멍이 뚫려 있다.(사진 12) 이 건물지와 내부 초석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전륜장의 중심주를 지지하던 심초석으로 보았다.<sup>20)</sup>(사진 13) 특히, 내부 초석의 세부 형태가 자연석을 이용한 부정형으로 예전 용문사의 윤장대 하부초석과 중국의 隆興寺 轉輪藏의 하부초석 규모나 세부수법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8) 金富軾, 『惠陰寺新創記』, 『東文選』64記, 峯城縣南二十許里有一小寺弛廢已久而鄉人猶稱其地爲石寺洞.

19) 崔榮淑, 『龍門寺 輪藏臺 研究』,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2007, 271~274쪽에서 필자는 윤장대의 유입시기를 고려초로 밝히고 있다.

20) 『永同 寧國寺』, 忠淸大學校 博物館·永同郡, 2008, 576~587쪽, 종합고찰 2. 유구를 통해 본 영국사의 시대 변천과정을 통해 윤장대의 하부초석으로 보고 있다.

이경미, 앞의 논문, 2007, 112~114쪽에서도 영국사 지도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윤장대의 하부 초석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사의 대장전지는 고려시대의 윤장대 유구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현재 사중에 전하는 사적기가 없어 사찰의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사찰로 알려진다.<sup>21)</sup> 경내에 남아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삼층석탑과 석조물들은 영국사의 초창시기를 통일신라시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圓覺國師 德素(1108~1174)의 下山所로 기능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이때의 대장전지를 비롯한 영국사의 전모가 확인되면서 본전과 좌·우 건물지가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고려시대 영국사의 다른 기록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어 본고에서는 건물지의 세부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sup>23)</sup>

먼저 윤장대를 봉안한 것으로 밝혀진 영국사 대장전은 지특산 중턱에 남-북 자오선을 중심으로 가람의 중앙 본전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는 고대로부터 경루를 가람 동쪽에 배치하던 전통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풀이된다.<sup>24)</sup> 이는 고려 불교의 중흥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다원가람이 확산되면서 대장전의 위치 또한 가람의 중심 불전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영국사 대장전은 전통적인 위치를 고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장전의 평면 구성을 살펴보면, 앞절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정면 1칸(6m)에 측면 1칸(6.4m)의 규모로 방형의 사방 단칸형으로 비교적 큰 규모이다. 고대로부터 방형의 단칸형 불전은 주로 종루나 경루 등의 건물에서 주로 차용되었다. 중국 遼代의 윤장대를 봉안하고 있는 隆興寺 轉輪藏閣(사진 14)의 경우도 평면 구성은 3칸×4칸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면 예불공간을 제외하면 3칸(13.8m)×3칸(13.3m) 형식이다. 이는 영국사 대장전과 동일한 방형의 평면 형식이다.<sup>25)</sup> 다만 용흥사 전륜장각은 내부가 통층형의 2층 구조이며 내부의 윤장대 높이는 약 10m 정도의 대형에 이른다. 용흥사 전륜장각의 평면 크기보다 절반 정도인 영국사 대장전 또한 6m가 넘는 평면과 주칸간격을 보이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영국사 대장전 역시 층고가 높은 건물로 판단된다. 또한, 용흥사 윤장대는 10m 가량의 대형 규모로, 영국

21) 『永同 寧國寺』, 忠淸大學校 博物館·永同郡, 2008, 27~32쪽. 영국사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사찰에 전해지는 사적기 등의 기록에서 “大通元年新羅孝靈大王” 창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22) 『永同 寧國寺』, 忠淸大學校 博物館·永同郡, 2008, 576~587쪽. 종합고찰 참조.

23) 이경미, 앞의 논문, 2007, 112~113쪽을 통해서 고려시대 영국사의 사역과 윤장대의 조성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설명을 배제하도록 하겠다.

24) 朴大盛, 『伽藍의 시기별 經·鐘樓의 配置特性에 관한 연구』, 慶尙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4를 통해 백제의 동남리사지, 신라의 사천왕사지, 원원사지, 황룡사지, 천군리사지, 불국사 등의 사찰에서 모두 왼쪽으로 경루가 배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25) 『中國古代建築 正定隆興寺』, 文物出版社, 2000, 68쪽, 도면 자료를 참고하였음.

사 윤장대의 경우에도 최소 4m 이상은 되는 대형규모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남아있는 국내 유일의 용문사 윤장대의 크기가 2m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큰 규모의 윤장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영국사 대장전의 유구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은 전각 내부에 불상과 불화같은 장엄물을 따로 봉안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중국 용흥사 전륜장각의 내부에도 중앙에 10m 이상의 대형 윤장대를 두었으나 주변에 불상이나 불화를 따로 봉안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국사 윤장대 유구의 하부시설에도 초석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기초시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려시대 건물지에서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하부의 기초시설을 별도로 갖추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볼 때, 영국사 대장전의 유구에서처럼 내부에 불상대좌와 같은 하부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윤장대 조성당시 불상 등 장엄물을 따로 봉안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영국사 대장전의 내부에 불상과 불화같은 내부 장엄물을 따로 봉안하지 않았다면 국내 유일한 윤장대인 용문사 대장전 내부에도 윤장대 조성당시에는 불상과 불화 등의 장엄물이 대장전에 함께 봉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관해서는 III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영국사 대장전지의 윤장대는 고려 때 유일한 윤장대 유구로 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부형식적인 면에서도 윤장대가 발생한 중국 윤장대의 외형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일신라시대부터 꾸준히 이어오던 본전 왼쪽에 위치하는 經藏의 위치성 또한 영국사 대장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영국사가 전통 방식을 잘 고수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 III. 대장전의 건축형식을 통해 살펴본 윤장대와의 연관성

용문사 대장전은 가람의 가장 높은 축대 위에 위치하며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집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15) 조선후기의 다포계 맞배지붕 불전의 평면 구성은 3×3칸 형식이 대부분이다.<sup>26)</sup> 그러나 용문사 대장전은 3×2칸의 평면형식을 보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장전 내부의 정칸 위치에는

<sup>26)</sup> 전봉희·이강민, 『3칸×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2006, 7~8쪽을 통해 지방유형문화재급 이상의 불전 156동중 3칸×3칸의 평면 유형이 50% 이상인 79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단과 목각후불탱화를 봉안하고 있고, 윤장대는 좌우 협간에 가설해 놓은 것은 조선후기 불전에서는 유례가 없는 독창적인 내부구성 형식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대장전의 세부 건축 형식과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3×2칸형 불전과의 형식 비교를 통해 용문사 대장전이 윤장대를 봉안하기 위한 특수한 설계가 시도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대장전 내부장엄물과 윤장대의 관계

용문사 대장전의 전체 규모는 3×2칸 구조로 약 48㎡이며, 이중 좌우측의 윤장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32㎡로 건물의 약 2/3정도이다. 이 공간 이외 정칸의 위치에는 조선후기 제작된 佛壇이 조성되어 있고 불단 상부로는 불상을 비롯한 목각후불탱화 등의 장엄물이 봉안되어 있다.(사진 16)

본장에서는 대장전 내부의 장엄물과 윤장대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불단과 윤장대와의 관련성으로서 조선후기 불전 내부의 불단배치 방식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불전은 전각 내부의 중간지점에 내부 고주를 세우고 그 위치에 맞춰 불단과 후불벽을 가설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에 비해 용문사 대장전은 내부 고주를 생략한 채 불단을 고정하는 내부 기둥없이 불전 중앙에 불단을 독립적으로 배치한 특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단의 배치 방식은 대장전 조성 당시 내부에 불단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불전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전제한다.(사진 17) 또한, 이 불단에 관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인 1915년 촬영된 대장전 내부의 윤장대를 촬영한 사진이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촬영된 이 윤장대 사진은 불전 내부를 전면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대장전의 측면 너비가 5m정도의 소규모 주칸 간격을 나타내고 있어 정면 위치에서 윤장대를 독립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불전 중앙에 불단이 반드시 한 화면에 촬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윤장대를 촬영한 사진에는 불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불단 위치는 2004년도 대장전 수리보고서에 의하면, 불단 배면 양측의 기둥목이 둥글게 가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배면의 대장전 기둥에 붙여 설치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후에 목각후불탱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시 내어 설치한 것으로 추정할 견해가 참고된다.<sup>27)</sup>

이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불단은 대장전 조성당시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낮고, 위치 또한 현재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불단은 그동안

27) 禮泉郡, 『龍門寺大藏殿-修理報告書-』, 2004, 195쪽 참조.

거듭된 수리로 인해 불단의 제작시기를 단정짓기 어렵지만 운장대의 몸체부분에 달려 있는 문짝의 세부기법과 불단제작기법의 비교를 통해 보아서 운장대보다는 후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불단 상부에 봉안된 불상과 운장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불상 또한 운장대와의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 앞장을 통해 언급하였듯이 고려 시대의 대장전 건물 중 유일하게 운장대 유구가 확인되는 영국사 대장전의 경우 운장대를 봉안한 하부 유구 이외에 별도의 공간이 남아 있지 않아 불상을 함께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범보신앙의 대표적 사찰인 해인사의 장경관전의 경우에도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따로 갖추고 있지 않고 다만 측면에 간소한 대좌를 놓은 후 비로자나불을 봉안하고 있다.<sup>28)</sup>

대장전내에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는 사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운장대가 처음으로 출현한 중국 요대의 隆興寺 轉輪藏이나 天龍山 石窟의 석조 운장대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운장대를 봉안한 대장전의 경우 불상을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예법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경전 자체가 佛身의 진리임으로 굳이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더라도 경전적인 근거나 건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운장대나 서가시설을 배치하기에 알맞은 최적의 면적만을 계산하여 대장전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시설물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불단 뒷면에 봉안된 목각후불탱과 운장대와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불전의 내부에는 후불벽을 조성하는 방식은 건물의 중앙 위치에 내부 고주를 세우고 불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는 앞 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내부 불벽 앞면에 후불탱화를 걸고 그 앞쪽에 불상을 안치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후불탱화의 봉안 방식이지만 용문사 대장전에서 처럼 불벽을 따로 조성하지 않고 목각후불탱화가 불벽을 대신한 경우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문사 대장전은 불벽을 따로 만들지 않았기에 목각탱화가 후불벽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되고 목각탱후불벽과 불단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서로간의 이음부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음 부재는 최근 가공된 나무부재를 사용하고 있고, (사진 18) 목각탱화를 고정하기 위한 뒷면의 고

<sup>28)</sup> 해인사 장경관전은 정면 15칸×측면 2칸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면 15칸은 대부분 장경판을 봉안하기 위한 서가가 놓여 있고 측면 2칸에 간단한 불단과 비로자나불을 봉안하고 있음.

정시설도 최근의 나무부재를 이용하고 있어 목각탱과 현재의 불단과는 그 관련성이 낮아 보인다. 불단은 배면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한 상태로 보는 견해를 앞서 밝혔으나, 목각탱과 불단이 배면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후불벽의 크기가 목각탱보다 50cm 정도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현재의 불단 위에 목각탱을 올려 배면에 봉안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 확인된 목각탱의 복장 원에서도 금당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어 목각탱과 대장전의 관련성을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sup>29)</sup> 이와 같이 현재 내부에 봉안된 목각탱과 대장전 건물과의 관련성은 낮아 보인다.

이상을 통해 대장전 내부에 봉안되어 있는 불단과 불상 및 목각탱화 등의 내부 장엄물은 대장전 조성당시에 봉안된 장엄물이 아니라, 후대 수차례의 이동을 통해 현재의 위치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대장전의 건축형식과 윤장대

본 장에서는 앞 장에 이어 용문사 대장전에 나타나는 세부 건축형식이 내부에 봉안된 윤장대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윤장대와 대장전의 관련성 검토에 앞서 용문사 대장전의 건립 시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용문사 대장전의 건물 연혁

- 1173년(명종 3), 대장전 창건
- 1467년(세조 13), 대장전 중수
- 1534년(중종 29), 대장전 중수
- 1597년(선조 30), 대장전 중수
- 1665년(현종 6), 대장전 중수
- 1670년(현종 11), 대장전 수리
- 1767년(영조 43), 대장전 중수<sup>30)</sup>

위의 연혁에 보이는 대장전의 초창 시기는 고려 중기인 1173년이며 조선 후기인 1767년까지 다섯 차례의 크고 작은 중수를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장전에 보이는 쇠서형의 공포나 건물의 정면성 등은 고려시대 불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양식이다.<sup>31)</sup> 이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불전에서만 확인되

<sup>29)</sup> 『體泉龍門寺大藏殿木刻幀腹藏原文』, 『한국의 사찰문화재』,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289쪽에 재인용. 維康熙二十四年...金堂始創腹藏記

<sup>30)</sup> 『體泉龍門山昌期寺大藏殿重修上梁文』, ...重修則天順十一年丁亥嘉靖十三年甲午萬曆二十年丁酉康熙四年乙巳 ...乾隆三十二年丁亥三月三日...

<sup>31)</sup> 양윤식,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95쪽. 건물의 정면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는 연화, 용두, 봉두 등의 상징물을 공포에 부가하여 장엄

는 기법들로,<sup>32)</sup> 현재의 대장전이 임진왜란 이후 새롭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같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용문사 대장전은 3×2칸의 평면형식을 갖추고 있다. 조선후기 3×2칸형의 평면형식을 갖춘 불전은 주로 사찰의 부불전에서 나타나며, 일부 소규모 산지가람 중 주불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용문사 대장전과 동일한 3×2칸형의 평면형식을 보이면서 사찰 주불전이며, 제작시기가 대장전과 동일시기인 17세기 전·후로 조성된 불전 가운데 대표적인 장곡사의 하대웅전이나 승림사의 보광전, 정혜사의 대웅전 등과의 양식 비교를 통해 용문사 대장전의 특징을 도출해내고 그 특징과 윤장대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사진 19)

먼저 대장전의 전체 규모와 윤장대와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확인되는데 다음과 같다. 즉 대장전 정면의 주칸 간격이 3295mm-3278mm-3281mm로 설정하고 있어 3칸 모두 동일 크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3×2칸의 평면형식이 동일한 정혜사 대웅전이나 승림사 보광전에서 동일정면의 주칸 설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3×2칸형 불전의 정면 주칸 설정방식의 일반적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불전 정면의 주칸 간격을 3칸 모두 동일하게 구성한 형식은 정면 3칸 형식의 불전 중에서도 주로 측면 칸수가 3칸 미만인 불전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sup>33)</sup> 다음으로 측면 너비의 설정은 2477mm-2471mm이며 이는 전·후칸을 동일한 규모로 양분한 것으로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동일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측면분할 설정은 정혜사 대웅전이나 장곡사 하대웅전, 승림사 보광전 등에서 나타나는데, 3×2칸형의 일반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윤장대 세부의 주칸 설정을 살펴보면 특징적인 점은 확인되지 않지만 대장전의 정면과 측면의 비율에서 1:1.99로 정면이 측면에 비해 2배 가까이 넓은 크기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3×2칸형 불전 비율이 1:1.33~1:1.61 정도로 나타나는데 비하면 세장한

---

성을 높이는 방식과 후면의 공포를 전면보다 간략하게 구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장전은 후장의 예에 속한다.

<sup>32)</sup> 17세기 불전 중 쇠서형의 공포와 건물의 정면성이 나타나는 불전은 다음과 같다.

장곡사 대웅전(1612), 환성사 대웅전(1635), 순천 동화사 대웅전(1660)

<sup>33)</sup> 문화재청, 『영조규범조사보고서』, 2006, 168쪽. 도리통 3칸인 건물 53동 중 퇴칸이 정칸보다 좁게 설정한 B-A-B형은 32동(60.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퇴칸과 정칸을 동일하게 설정한 A-A-A형이 12개(22.6%)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A-A-A형 건물은 정릉사지 서금당(3×2), 승림사 보광전(3×2), 장곡사 하대웅전(3×2), 무위사 극락전(3×3), 불갑사 대웅전(3×3), 성혈사 나한전(3×1), 개심사 대웅보전(3×3), 미황사 대웅전(3×3) 등이 있음.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평면 형식이 통도사 영산전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특정의 평면형식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측면에 비해 정면이 넓은 비율을 유지한 이유는 내부에 봉안되어 있는 윤장대가 쌍으로 조성됨으로써 수평으로 넓은 면적을 확보하려했던 의도성이 엿 보인다.

둘째, 대장전의 지붕 구조와 전체 규모, 수직비율 관계 등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일반불전의 지붕구성은 크게 팔작, 맞배, 모임지붕 등 3종류로 구분된다. 이중 사찰의 중요 전각의 경우 주로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이 가장 흔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붕의 형태에서 대장전은 맞배지붕집으로 맞배지붕은 주로 사찰의 중심전각이 아닌 실용적인 건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용문사 대장전의 내부 좌·우 협간에 윤장대를 봉안해 놓은 것을 감안했을 때 정간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건물이 아닌 측면 협간을 활용한 건물로써 측면 협간의 활용 범위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맞배지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물에서 정면성이 나타나고 있어 당시의 어려웠을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지붕의 구조와 더불어 일반형의 3×2칸 불전에서 보이는 건물 전체의 수직 비율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건물의 수직비율은 건물의 전체 높이를 100%로 간주할 때 지붕높이와 축부높이의 비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실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바닥에서 축부까지의 높이에 해당한다. 이 공간에 건물 내부에 봉안되는 불단을 비롯한 각종 공양구가 놓이게 된다. 용문사 대장전은 바닥면에서 축부까지의 높이가 약 4m(3, 933m)로 건물 전체의 높이를 100%로 볼 때 약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3×2칸형 건물의 축부 높이가 3,816m~4,673m로 용문사 대장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비율로 환산해 볼 때 바닥에서 축부까지의 높이는 53%~56% 사이로 특별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용문사 대장전의 축부까지의 높이는 내부에 봉안된 윤장대를 고려하여 높게 설정되지 않고 3×2칸형 불전의 평면 형식과 가구 구성에 맞추어 조성된 높이임을 알 수 있다.

셋째로 건물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가구구성과 윤장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겠다. 먼저 용문사 대장전은 맞배지붕으로 내부 가구와 측벽 가구가 다르게 구성된다. 즉 측벽의 가구구성은 전·후칸을 동일하게 양분하여 중앙에 고주를 높게 세우고 고주 상부에 대보를 받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裴秉宣, 『多包系맞배집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96~197쪽을 통해 다르게 팔작지붕 보다 다포계 맞배지붕집이 경제적으로 소규모의 비용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음.

이는 주로 3×2칸형 불전에서 나타나는 측벽 가구법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윤장대의 내부 가구를 살펴보면 측벽 가구와 다르게 중앙에 고주를 두지 않고 전·후 평주 상부에 공포대를 놓았으며, 다시 상부에 대보를 올린 형식이다. 대보 상부로는 동자주 2기를 놓고 종보를 받고 있으며, 종보는 다시 제형대공을 놓고 상부의 종도리를 받아 내부의 가구들을 완성하였다. 이같은 내부의 가구 구성 역시 장곡사 하대웅전이나 승림사 보광전, 정혜사 대웅전 등에서 나타나는 무고주 5량가의 가구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17세기의 3×2칸형 불전과 동일한 가구법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내부와 측면의 가구법을 통해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고려한 독창적인 가구법을 채택하지 않고 17세기 일반형의 3×2칸형 가구 구성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장전에 나타나는 세부 건축기법과 윤장대와의 연관성을 살펴 보겠다. 먼저 대장전의 기단은 상대갑석과 장대석을 이용해 조성한 가구식기단이다. 가구식기단은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 대웅전기단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이후 고려시대에는 상대갑석과 하대갑석 사이를 장대석으로 마감한 가구식기단 형태가 나타나고, 봉정사 극락전 기단과(12세기), 범주사 팔상전 및 관음전 기단 등에서도 확인된다.<sup>35)</sup>(사진 20) 용문사의 대장전 기단 또한 장대석을 이용한 가구식기단으로 범주사 대웅전이나 봉정사 극락전에서 보이는 기단과 동일한 형식으로 주목된다. 특히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 상량문에 따르면, “극락전 이전에 대장전으로 조성되었다” 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고려시대에도 역시 대장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이처럼 봉정사 극락전과 용문사 대장전은 후면산지형과 동일한 입지조건, 장대석 가구식기단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 공통된 점으로 일정부분 고려시대 대장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장대석 기단은 1915년 촬영된 『조선고전도보』사진을 통해 현재 기단의 모습과 동일한 기단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고려시대 초창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21)

이상과 같이 용문사 대장전의 기단 모습을 통해 고려시대 초창된 대장전이 현재 크기와 유사한 규모로 조성되었다는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측면의 기단 형식은 장대석이 아닌 자연석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측면은 후대 보수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대장전에 드러나는 세부 건축기법을 살펴보면, 먼저 건물의

<sup>35)</sup> 전봉수, 『한국사찰건축의 가구식 기단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참조.

<sup>36)</sup> 『봉정사 극락전 수리보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52쪽.

이경미, 앞의 논문, 2007, 88~89쪽.

시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포의 세부 형태에서 쇠서형의 공포와 정면성이 드러나는 점을 꼽을 수 있다.<sup>37)</sup>(사진 22) 쇠서형 공포는 화엄사 대웅전과 범주사 대웅전, 관룡사 대웅전, 양산 신흥사 대광전, 통도사 대웅전 등에서 보이며 17세기를 대표하는 공포형식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이 쇠서형 공포형식을 띠는 용문사의 대장전 역시 제작시기가 17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포 전면에 비해 후면이 간략화 되면서 전·후면의 공포형식이 서로 다르게 정면성도 나타난다. 건물의 정면성 또한 임진왜란 이후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하에 발생한 특징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특징 또한 대장전이 임진왜란 이후에 중수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한편 대장전 내부의 동자주 중 향아리형의 단면 부재가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같은 부재는 봉정사 극락전의 부재와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이는 고려시대의 건축부재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곧 임진왜란 이후 대장전이 조성될 당시 그 이전의 원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불전을 재현하려는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용문사 대장전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아니라, 17세기의 대부분 불전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이는 곧 과거의 건축적 특징을 복원하려는 경향으로 간주된다.<sup>38)</sup>

지금까지 용문사 대장전의 건축형식과 윤장대와의 관련성을 찾아본 결과 대장전에 보이는 건축의 세부기법은 임진왜란 이후 재건된 17세기 불전의 세부기법들이 확인되었으며, 윤장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전체 건물의 규모와 지붕 형식은 고려시대 윤장대의 초창 당시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장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측면 2칸형의 규모는 지형적 입지조건상 후면산지형으로 넓은 범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측면 2칸형 불전의 세부 건축 형태로는 <표 1>과 같다.

<sup>37)</sup> 양윤식,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38~140쪽에서 쇠서형 공포가 나타나는 불전으로 범어사 대웅전(1611년), 금산사 대장전, 대웅전, 대적광전(1635년), 개암사 대웅전(1636년), 범주사 대웅보전(1618년)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장 늦은 시기는 1730년 조성된 운흥사 대웅전으로 보고 있다.

<sup>38)</sup> 吳世德, 『朝鮮後期 重層佛殿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04~107쪽 참조.

<표 1> 17세기 측면 2칸형 불전의 세부 건축형태<sup>39)</sup>

| 내용                   | 용문사<br>대장전                      | 정혜사<br>대웅전                      | 장곡사<br>하대웅전                     | 승림사<br>보광전                     |
|----------------------|---------------------------------|---------------------------------|---------------------------------|--------------------------------|
| 제작<br>연대             | 17세기                            | 17세기                            | 17세기                            | 16세기<br>중반                     |
| 평면                   | 3×2                             | 3×2                             | 3×2                             | 3×2                            |
| 지붕                   | 맞배지붕                            | 팔작지붕                            | 팔작지붕                            | 맞배지붕                           |
| 공포<br>배열             | 전·후                             | 사방                              | 사방                              | 전·후                            |
| 주칸<br>정면             | 3295-3278-3281<br>(A-A-A), 9894 | 2800-2800-2800<br>(A-A-A), 8400 | 2472-3692-2446<br>(B-A-B), 8610 | 3089-3049-3080<br>(A-A-A) 9218 |
| 주칸<br>측면             | 2477-2471(A-A)<br>4948          | 2850-2850(A-A)<br>5900          | 2699-2630(A-A)<br>5329          | 3346-3472(A-A)<br>6918         |
| 측면<br>:정면            | 1:1.99                          | 1:1.4                           | 1:1.61                          | 1:1.33                         |
| 지붕고                  | 3215                            | 3623                            | 3365                            | 3809                           |
| 건물고                  | 3933                            | 4323                            | 3816                            | 4673                           |
| 건물고<br>:측부고          | 45%:55%                         | 46%:54%                         | 47%:53%                         | 45%:55%                        |
| 건물고<br>:지붕고          | 1:1.22                          | 1:1.19                          | 1:1.13                          | 1:1.22                         |
| 지붕너비<br>(내부사용너<br>비) | 9894<br>(9894)                  | 8437<br>(6812)                  | 8016<br>(6690)                  | 9218<br>(9218)                 |
| 정면성                  | 나타남                             | 나타나지<br>않음                      | 나타남                             | 나타남                            |
| 공포<br>형태             | 전:쇠서형<br>후:변형삼분두                | 전:쇠서형<br>후:쇠서형                  | 전:쇠서형<br>후:교두형                  | 전:쇠서형<br>후:판재형                 |
| 가구                   | 무고주 5량가<br>2중량                  | 무고주 5량가 2중량                     | 무고주 5량가<br>2중량                  | 무고주 5량가<br>2중량                 |
| 지형과의<br>관계           | 후면<br>산지형                       | 후면 산지형                          | 후면<br>산지형                       | 후면<br>산지형                      |

<sup>39)</sup> <표 1>에 사용된 수치는 다음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長谷寺實測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8 ; 『한국의 고건축』 20,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8 ; 『韓國의 古建築 崇林寺 普光殿』23,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1 ; 『龍門寺 大藏殿 修理報告書』, 禮泉郡, 2004.

#### IV. 윤장대의 세부기법 및 제작시기

앞 장에서 대장전의 건축적 특징을 도출해 본 결과 용문사 대장전은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 고식적인 기법을 가미해 재건한 불전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 동안 대장전 내부의 윤장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장대 제작의 시기성을 정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17세기 이후 조성된 수많은 사찰의 불전 장엄물과의 형식 비교를 통해 윤장대의 제작시기 및 윤장대가 지니는 미술사적 의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40)</sup>

용문사 대장전의 윤장대는 건물 내부의 좌우측으로 가설되어 있는 兩藏 형식이다. 이는 12세기경 중국 單藏 형식의 대장전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특히 윤장대 좌·우측으로 구성된 기본적 방식은 동일하나 세부 기법에서는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특징이 곧 우리나라 윤장대의 특징적 요소를 잘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용문사 윤장대의 구성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상·중·하단부의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사진 23) 이중 하단부는 하부의 축기둥 부재에서 중단부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장식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장식성이 없는 하단부에 비해 중단부의 경우 세부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특징과 조선후기 제작된 사찰 장엄물과의 세부기법 비교를 통해 윤장대의 시기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윤장대 중단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단부에서 나타나는데, 정자건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돌난대 난간을 두르고 있다는 점과 몸체부 8면에 문짝을 걸어 팔각면의 몸체를 완성한 점을 들 수 있다. 중단부 몸체의 문짝은 조선후기 사찰의 일반적인 불전 문짝에서 보여지는 특징인 상부를 궁관으로 마감하면서 하부에 꽃살문으로 장식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향 우측의 윤장대는 8면을 꽃살문으로 장식하지 않고 빗살문으로 마감함으로써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중 향 좌측 윤장대의 꽃살문 세부 형식으로는 각각 통판투조 모란꽃살문, 통판투조 솟을절레꽃살문, 통판투조 솟을국화꽃살문, 통판투조 연지수금꽃살문, 통판투조 솟을국화꽃살문, 통판투조 솟을살국꽃살문(매화), 통판투조 미늘꽃살문, 통판투조 솟을국화꽃살문으로 분석되고 있다.<sup>41)</sup> 특히 주목되

40) 崔榮淑, 『龍門寺 輪藏臺 研究』,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2007, 282~285쪽을 통해 17세기 제작된 불전장엄물과 비교를 통해 1621년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초창시기의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41) 閔慈榮, 『體泉 龍門寺 大藏殿 輪藏臺 꽃살문에 관한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2쪽.

는 꽃살문은 통판투조 연지수금 꽃살문이다.(사진 24) 통판투조 꽃살은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정수사 법당(사진 25)이나 성혈사 나한전(사진 26)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꽃살문으로 제작시기는 1600~1718년까지이다. 즉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sup>42)</sup> 또한, 국화꽃살문(사진 27) 역시 꽃살의 세부적인 모습은 내소사 대웅보전(1636년, 사진 28)이나 통도사 대웅보전(1654년, 사진 29)에서 보이는 꽃살문 세부 형태와 동일하다. 국화꽃살문 또한 제작시기의 하한연대는 17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향 좌측 윤장대의 몸체부 8면에 놓여 있는 꽃살문의 세부 표현 방식을 살펴볼 때 향 우측의 윤장대는 17세기 초반에서 18세기 초반경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꽃살문과 함께 그 하부에 둘러져 있는 돌란대를 통해서도 17세기에 나타나는 운문사 불연과 대비사 불연 등의 장엄물에서 보이는 돌란대와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어 제작시기의 하한 연대는 17세기 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향 우측 윤장대의 빗살창 창문 형식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건물에서부터 등장한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고식 건물로 봉정사 극락전이나 일본의 山田寺 등에서 보이는 살창문이 직선형으로 된 교살창을 이용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향 우측 윤장대의 빗살문과 차이점이 발견되는 점이다. 또한 세부 빗살의 구성 기법으로는 조선후기의 광덕사 불전대좌에서 보이는 빗살(사진 30)과 조선후기 사찰의 빗살창과의 유사점이 확인되고 있어 향 우측 윤장대의 빗살문도 조선후기에 제작된 조형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윤장대 상부를 살펴보면, 마치 건물의 지붕을 번안한 것처럼 하부에 헛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창방과 평방을 놓았다. 여기에 주상포와 주간포를 놓은 화려한 다포집으로 표현하고 있다.(사진 31) 창방과 평방 상부로는 주두를 놓고 살미첨차를 十字로 교차하여 외단으로 7출목까지 높게 쌓아 올렸다. 특히 각 면의 모서리 부분에는 창방뿔목과 평방뿔목을 교차해 표현하고, 상부의 귀포를 결구하고 있어 팔작지붕에 나타나는 귀포의 세부 기법까지 완벽하게 번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건물 외단의 외7출목까지 완벽하게 나타내는 화려한 다포건물은 조선후기의 일반 불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그 대부분이 단집에서 주로 보인다. 그중 1678년에 제작된 신록사 극락전의 단집(사진 32)이나 1680년의 영광 불갑사 단집(사진 33) 등에서 보이는 풍혈청판이나 공포대 형식은 용문사 윤장대 상부의

42) 任聖玉, 『朝鮮後期 꽃살 窓戶 研究』, 東國大學教 석사학위논문, 2010, 96쪽.

공포대나 하부 꽃살문의 세부 형식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옥개부 또한 17세기 중·후반경에 조성된 단집과 유사성이 확인되는데 제작시기는 17세기 후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이상으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의 세부 형식을 살펴보았다. 즉 몸체부에서 보이는 세부기법으로는 17세기 초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조성된 사찰 꽃살문과 친연성이 확인된다. 또 상부 옥개부에서 보이는 세부 기법은 17세기의 사찰 단집에서 드러나는 세부기법과 친연성이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세부기법을 종합해 볼 때 용문사 윤장대는 17세기 중·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윤장대를 봉안하고 있는 대장전이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반에 건립된 점과 대장전의 세부 건축수법이 윤장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대장전과 윤장대의 시기적 편차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대장전의 건축 이후에 윤장대가 조성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한 민심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사찰 불전과 내부 불단 및 불상, 그리고 장엄물을 동시에 조성하기에는 당시 환경이 여의치 못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윤장대는 대장전 조성이후인 17세기 중반경 즉, 1665년(현종 6)의 대장전 중수 때, 또는 1670년(현종 11)의 대장전 수리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용문사 윤장대의 세부 기법과 형식을 통하여 조선후기에 보이는 일반적인 經藏건축은 경감을 이용하여 단순화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즉 용문사 윤장대는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던 고식적 형태에 17세기 이후의 새로운 세부 기법이 가미된 조형물로 파악된다. 또한 單藏의 일반적인 형태의 윤장대가 나타나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兩藏의 윤장대가 남아있는 사례가 유일하여 미술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

## V. 맺음말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의 선행 유구로 알려진 고려시대의 회암사지 대장전 윤장대 하부시설과 혜음원지 대장전 윤장대의 하부시설, 영국사 대장전 윤

<sup>43)</sup> 심대섭·신대현, 『단집 부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 그리고 장엄』, 대한불교진흥원, 2010, 183~184쪽, 전통단집 현황표 참조.

장대의 하부시설 등을 재검토해 본 결과 영국사 대장전 윤장대의 하부시설을 제외하면 회암사지와 혜음원지 윤장대의 하부시설은 현재까지 고려시대 윤장대의 하부시설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해서는 이후 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앞 시기의 선행되는 대장전의 유구 검토를 통해 몇 가지의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현재 용문사 대장전의 건축형식을 살펴보면서 선행시기의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17세기의 3×2형 불전과 동일한 승림사 보광전 및 정혜사 대웅전, 장곡사 하대웅전의 세부 건축 형식을 비교 고찰하여 용문사 대장전에 나타나는 세부 건축기법이 윤장대를 고려해 조성된 건축기법인지 살펴보았는데, 외형적인 건축의 형태에서는 선행 시기 대장전의 유구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세부 건축기법을 통해 17세기의 다른 불전과 동일한 불전 건축용도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윤장대에 나타나는 세부기법의 검토를 통해 기존에 알려져 있는 초창 시기인 고려시대 이후 현재까지 거듭된 개·보수 과정을 거치며 고대 기법의 흔적을 찾아보았으나, 실제 세부기법은 고대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 또 건물의 재건 연대와 동일시기인 17세기 중·후반경에 이르러 전체를 새로 조성하였고, 이는 조선후기 제작된 불전 장엄물들과의 형식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부 형식보다는 전체 큰 틀은 기존의 윤장대를 모방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용문사 대장전의 윤장대가 갖는 미술사적 의의로는 고려시대 윤장대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미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의 건축 및 세부기법 특징을 비교 고찰해 본 결과 기존의 대장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막연하게 주장되었던 윤장대의 하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기존 윤장대를 통해 바라보던 대장전이 아닌, 대장전이라는 건축물을 통하여 윤장대의 건축적 관련성이나 시기편년 등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현존하는 윤장대가 용문사 것이 유일하여 논리 전개에 있어 다소 무리한 추론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투고일 2012년 2월 6일 | 심사완료일 2012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2일 ■

## 참고문헌

### 경전 및 고문헌

『雜阿含經』  
『妙法蓮華經』  
『悲華經』  
『東文選』  
『三國遺事』

### 보고서 및 단행본

『長谷寺實測調査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8.  
『한국의 고건축』 12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0.  
『봉정사 극락전 수리보공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한국의 고건축』 20, 국립문화재 연구소, 1998.  
『中國古代建築 正定隆興寺』, 文物出版社, 2000.  
『韓國의 古建築 崇林寺 普光殿』 23,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1.  
『檜巖寺Ⅱ 7·8단지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도/양주시·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龍門寺 大藏殿 修理報告書』, 禮泉郡, 2004.  
전봉희·이강민, 『3칸×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2006.  
『영조규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6.  
『괴주혜음원지 발굴조사보고서 1~4차』,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괴주시, 2006.  
『永同 寧國寺』, 忠淸大學 博物館·永同郡, 2008.  
심대섭·신대현, 『달집 부처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상상 그리고 장엄』, 대한불교진흥원, 2010.

### 논문

裴秉宣, 『多包系맞배집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3.  
長勇, 『傳大士研究』, 巴蜀書社出版發行, 2000.  
양윤식,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의 공포 의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전봉수, 『한국사찰건축의 가구식 기단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朴大盛, 『伽藍의 시기별 經·鐘樓의 配置特性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경미, 『고려·조선의 法寶信仰과 經藏建築의 변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경미, 『고려중기 慧照國師의 對北宋 交流와 轉輪藏 도입』, 『건축역사연구』 제16권 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7.
- 崔榮淑, 『龍門寺 輪藏臺 研究』,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2007.
- 吳世德, 『朝鮮後期 重層佛殿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閔慈榮, 『醴泉 龍門寺 大藏殿 輪藏臺 꽃살문에 관한 研究』,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任聖玉, 『朝鮮後期 꽃살 窓戶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Abstract

## Yunjangdae at Daejangjeon of Yongmunsa Temple, Yecheon

Oh Se-deok

A pair of Yunjangdae, a sculpture representing the canon belief is located inside Daejangjeon of Yongmunsa Temple in Yecheon. Many studies have been made for its academic value as the only Yunjangdae in Korea.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attention to Daejangjeon where Yunjangdae is installed. It is absolutely true that Yunjangdae as the enshrined object in the temple forms a separate relation with Daejangjeon,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gure out the organic relation of the two in the history of art.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e organic relation between Daejangjeon and Yunjangda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reconsideration of sub facility of Yunjangdae in Goryeo period which was known as the precedent relics of Yunjangdae at Daejangjeon of Yongmunsa Temple, it raised a necessity of further study as it is hard to determine if sub facilities of Yunjangdae in Hoiamsa temple site and Hyeemone temple site except for sub facility of Yunjangdae in Youngkuksa Temple.

Second, when the review of relics in Daejangjeon in the two previous periods, it could figure out elements of precedent period by means of architectural type examination of Daejangjeon of Yongmunsa. And, comparing with specific architectural type with 17th century 3×2 type Buddhist temple, it attempted to examine if specific method reflected Yunjangdae. It showed that in the appearance it resembled the precedent period relics and the specific architectural method had the same architectural purpose with other examples in the 17th century.

Third, it assumed that ancient method might remain through revision and repair process from Goryeo, the first established period, by examining

the specific method in Yunjangdae, but actual elements of ancients cannot be verified. The possibility of resembling Yunjangdae at large rather than in specific manners is acknowledged.

As such, this study figured out artistic meaning of Yunjangdae of Yongmunsa temple, and concluded that it has archetype of those of the Goryeo period and it shows transitional feature of Yundae through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s : Daejangjeon of Yongmunsa Temple, Yunjangdae, Yunjangdae in Youngkuksa Temple, Yunjangdae in Hoiamsa temple site, Yunjangdae in Hyeumone temple site.

## 도판



사진 1. 회암사지 대장전지



사진 2. 회암사지 윤장대 하부초석



사진 3. 남선사 대전(당)



사진 4. 하화암사 박가교장



사진 5. 용흥사 전륜장



사진 6. 혜음원 대장전지



사진 7. 혜음원지 윤장대 하부초석



사진 8. 혜음원지 일반초석



사진 9. 고달사지 초석(고려)



사진 10. 사천왕사지 초석(통일신라)



사진 11. 동대사 하부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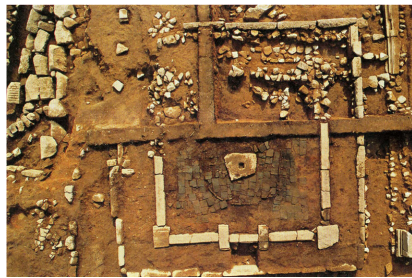


사진 12. 영국사 대장전지



사진 13. 영국사 윤장대 하부초석



사진 14. 용흥사 전륜장각



사진 15. 용문사 대장전



사진 16. 대장전 내부 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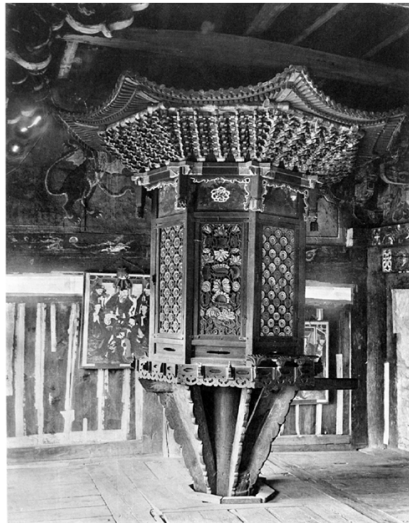


사진 17. 『조선고적도보』 윤장대(1919)



사진 18. 불단과 목각탱 이음상태



장곡사 하대웅전

송림사 보광전

정혜사 대웅전

사진 19. 17세기 3×2칸 평면형식 불전



사진 20. 고려시대 가구식기단



사진 21. 대장전 『조선고적도보』(1919)



사진 22. 대장전 쇠서형 살미



사진 23. 윤장대



사진 24. 연지수금  
꽃살문(윤장대)



사진 25. 정수사 법당  
꽃살문(17세기)



사진 26. 성혈사 나한전  
꽃살문(17세기)



사진 27. 국화 꽃살문  
(윤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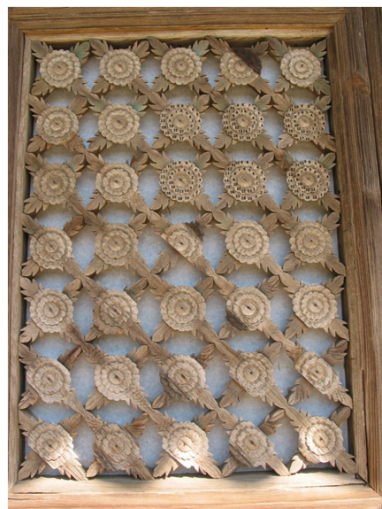


사진 28. 내소사 대웅전 꽃살문(17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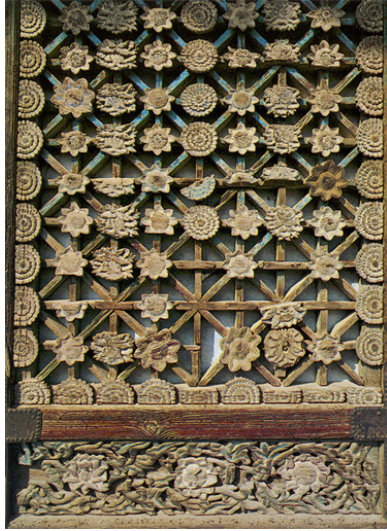


사진 29. 통도사 대웅전 꽃살문(17세기)



그림 30. 광덕사 불단대좌 빛살문



그림 31. 윤장대 상륜부



사진 32. 신흥사 달집(1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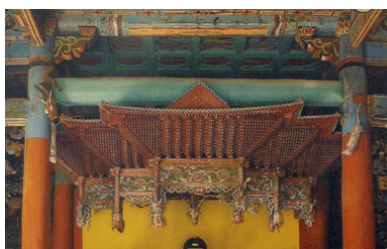


그림 33. 불갑사 대웅전 달집(1680)